



일본 배합사료

시장 현황



박웅렬 박사
(㈜삼양사 축우PM)

최근 우리나라도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해상운임의 폭등으로 인해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약 24% 가량의 사료 가격이 인상되었다. 또한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각종 질병 발생 및 축산 폐기물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소수의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축 농가가 매우 심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료업계 또한 배합사료의 원가 상승 및 치열한 판매 경쟁의 이중고를 앓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환경, 관습, 식생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며, 축산환경 또한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축 사육의 배합사료 의존도가 매우 높고, 배합사료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가축의 사양관리 또한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배합사료 업계 동향을 분석하여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1. 연도별 일본의 배합사료 및 주요 사료원료 가격추이

현재 일본에서는 사료 원재료비 상승 문제 및 BSE, 조류독감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식품 안정성 확보가 축산 관련 업계와 사료 업계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일본의 배합사료 주요 원료의 가격 변화를 보면 1996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원료 가격이 199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 또한 동반 상승 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배합사료는 1999년 대비 2003년에 8.6%가 상승하였고, 사료의 주요 원료인 보리, 소맥피, 옥수수는 평균 11.6%가 상승하여 배합사료의 인상을 보다 원료의 인상이 더 높은 추세로 진행되었다.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양축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원재료비의 인상폭이 더 큼으로 인해 배합사료 업계 또한 심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축산물 브랜드화 및 품질 고급화,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에 관련 업

일본 배합사료 시장 현황

<표 1> 연도별 일본의 배합사료 및 주요 사료원료 가격추이

구 분	연차지수 (기준년도 '99년 = 100)							03년 평균가격 (엔/kg)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2년	03년	
배합사료	114.1	113.1	102.8	100.0	103.3	106.3	108.6	-
압편보리	106.9	109.4	105.7	100.0	103.2	107.8	111.6	45
소맥피	113.9	120.1	105.6	100.0	104.3	109.6	112.2	31
옥수수	117.5	115.9	104.7	100.0	104.3	108.3	111.0	36
헤이큐브	117.6	118.7	101.9	100.0	109.6	115.7	116.1	52
비트펄프	110.5	106.3	99.1	100.0	108.2	108.0	109.2	47

계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나라의 상황 보다는 그 충격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관련 업계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고유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화, 축산물의 고급화 등을 통한 차별화가 없이는 수입 축산물의 시장 잠식을 막는데 한계가 있으며, 축산 농가의 경쟁력 또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사업 전 분야의 세계화 추세 속에 축산업 또한 예외일 수 없음을 온 업계는 직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일본의 축산물 가격 현황에 대해 알아 보자.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최근의 축산물 가격 형성이 질병 발생과 매우 민감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스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에 기인되기도 한다.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도 최근 일본과 유사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향후 축산업계는 가축질병문제, 환경오염, 축산물 안전성 등이 경쟁력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2. 축산물 가격 추이

한편 일본은 2001년 BSE가 최초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총 9두가 발생하였다. 위 표와 같이 BSE 발생 년도인 2001, 2002년은 쇠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를 하여, 전년 대비 평균 7.4~8.6%가량 가격이 하락되었고, 그 영향으로 대체 육류인 돼지고기의 소비가 증가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광우병 발생 이후 소고기의 소비는 급감하고 돼지고기의 소비는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하겠다.

<표 2> 일본의 축산물 가격 추이

구분	2003년 10월 - 2004년 3월								전국 평균가격(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단위	2003년 평균가격
계란	105.6	88.3	101.2	100.0	88.9	91.7	79.5		10 kg	1,397
우유	100.9	101.4	100.7	100.0	100.7	100.8	102.0			832
육류										
거세화우	105.3	105.1	102.0	100.0	93.0	87.9	107.6			11,280
화우암소	106.3	104.9	102.1	100.0	92.6	85.4	102.0			9,863
홀스타인(숫소)	115.0	103.6	90.4	100.0	91.4	60.2	71.8	생체		3,497
교잡우(F1)	-	-	-	100.0	92.7	76.7	97.9	10kg		6,804
돼지고기	115.2	107.0	103.8	100.0	111.3	117.0	97.0			2,603
육계	101.1	101.6	101.4	100.0	100.1	100.1	98.5			1,703

그러나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국의 축산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여, 2003년 BSE가 계속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의 쉐 도축 소에 대해 BSE 검사를 실시함을 통하여 일본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신뢰감을 심어주어 화우 시세는 경쟁력을 회복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광우병의 발생은 일본의 배합 사료 업계에도 원료비 상승과 더불어 커다란 경영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일본 농림성은 BSE 예방 대책으로 2005년 4월까지 축우사료와 그 외의 사료생산라인을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축우용 사료의 동물성 원료 사용 금지에 따라 공장의 생산라인 분리는 불가피해졌고, 그 결과 각 회사간의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2003년 10월 일청사료와 환홍사료의 합병과, 뒤이어 2004년 3월 미쯔비시상사 계열의 일본농산과 미쯔이물산 계열인 일본배합사료의 생산 통합을 기본으로 한 합병이다. 특히 후자의 통합 회사는 전국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全農이라 하며 우리나라의 농협과 유사한 단체임)에 이어 일본 사료업계 2위가 되었다. 兩社の 합계 매출액은 약 1조8,500억원(일본농산공업:1조1천억원, 일본배합사료:7,500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15%에 달하며, 일반 사료업계 중 최대 규모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회사간 통합은 생산 합리화(공장별로 생산 축종을 특화하여 생산효율 및 안정성을 높임) 뿐만 아니라, 제품 물류체계, 사료가격, 제품 안정성 등 여러 면에서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이는 안정된 품질의 저렴한 사료를 공급받기 원하는 축산 농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4월부터는 생산뿐만 아니라 물류, 연구개발

일본 배합사료 시장 현황

분야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사의 대표가 모여 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다른 사료 업체도 제휴에 참가하고 싶다면 긍정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하여 일본 사료업계 전체가 일단 재편, 집산될 가능성도 있다(〈표 3〉 참조).

<표 3> 배합사료 업체의 판매량 순위 및 회사간 통합

(단위: 만톤)

순위	회사명	판매물량	M/S	비고
1	全國農業協同組合連合會	741	30.2	-
2	日本農産+日本配合飼料	365	15.0	2004년 3월 통합
3	日清飼料+丸紅飼料	258	10.5	2003년 10월 통합
4	中部飼料	214	8.7	-
5	協同飼料	170	6.9	-
6	伊藤忠飼料	119	4.9	-
7	日和産業	91	3.7	-
8	昭和産業	90	3.7	-
9	豊橋飼料	68	2.8	-

이상과 같이 일본의 축산 및 배합사료 업계의 현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일본의 축산 업계는 다년간 여러 분야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공동의 노력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일본에서 수학할(1995년~2002년; 일본 경도대학 농학부 졸, 일본 축산 초지 연구소 근무) 당시에도 자국의 축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본의 국가기관, 학계, 민간기업, 축산관련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공동 연구를 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막연한 부러움이었으나, 최근 일본의 축산현황을 보면 준비된 노력의 결과물들이 한편 경외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정연한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우리의 선배들이 천수답을 걱정했듯이, 앞서서 원료비 상승, 질병 문제, 환경 규제 등만 탓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고 우리의 축산 실정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학계는 신규 원료 및 질병 예방의 지속적인 연구, 관련 업계는 상생의 원칙하에 품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 농가 또한, 사양관리 기술 개발 및 원칙적인 사양 관리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을 너무 광범위하게 맺는 것 같으나 그만큼 서로가 하기로 한 원칙은 준수 하자는 기본에의 충실을 재삼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후일, 외국의 어느 잡지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축산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의 젊은이가 당시 한국의 축산업계의 종합적인 노력의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는 글이 남겨지길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⑤